

과학기술부

전국토 환경방사선자동감시소 추가 설치

과학기술부는 5월 27일(월) 환경방사선자동감시소가 울산·수원·전주·서귀포에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방사선자동감시는 국내·외 원자력사고 및 방사능테러 등 방사선 비상상황의 조기탐지와 전국의 환경방사선을 균형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선진 각 국은 방사능사고에 대비한 자국의 환경방사선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국 지방 방사능측정소 10개소와 자동감시소 7개소 등 17개소를 운영하여 왔다. 과학기술부는 이번에 설치된 4개 감시소 외에 금년 말까지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총 36개소의 감시소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학회 및 대한방사선방어학회

한국원자력학회(회장:신재인)과 대한방사선방어학회(회장:류성렬)는 2002년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를 2002년 5월 23일(목)~24일(금)까지 조선대학교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이날 신재인 원자력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원자력과 방사선이 어우러지는 학회가 되길 바라며 추후 다른 분야와의 퓨전학회를 계획하겠다고 했다.

5월 23일(목) 오전에는 원자력학회의 분과별 학술발표가 있었으며 오후에는 조청원(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이명철(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은영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특별강연 및 공동리셉션이 개최되었으며

5월 24일(금)에는 원자력학회의 분과별 학술발표와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의 학술발표회(구연 및 포스터) 및 심포지움이 열렸다.

방사선방어학회 춘계 심포지움에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사선 이용』이라는 주제로 “우주 산업에서의 원자력공학의 역할”(김명현 교수), “방사선을 이용한 환경문제 해결”(한범수 박사) “핵의학연구의 발전 방향”(이동수 교수), “방사선(RT)과 BT/NT 복합기술의 응용”(박경배 박사) 이 각각 발표되었다.